

[장 미셸 오토니엘 '검은 연꽃' 展 / 3월 27일까지 / 국제갤러리]

5 February, 2016 | 조지현 기자

page 1 of 2





<앵커>

문화현장, 전시회 소식 조지현 기자가 모았습니다.

<기자>

색깔과 재료는 다르지만, 이 전시장 안에 있는 건 모두 '연꽃'입니다. 프랑스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은 꽃의 형태를 구슬 모양의 유리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이번엔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강한 인상을 받은 '연꽃'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.

[장 미셸 오토니엘/조각가 : 연꽃은 제게는 한국의 상징이고, 순수함의 상징 이어서, 작품에서 개념적으로 쓰였습니다.]  
조각뿐 아니라, 흑백의 캔버스 작품도 처음으로 전시됩니다.